

玄氏兩熊雙麟記의 書誌的 研究

—樂善齋本과 德興書林本の 경우—

金 鎮 世*

序

「玄氏兩熊雙麟記」는 作者와 創作年代를 아울러 알 수 없는 우리의 古典小說이다. 朝鮮朝 後期에 創作되었으리라 推測되는 이 作品은 筆寫本과 活字本이 傳해지고 있다. 筆寫本은 10卷 10冊으로 된 宮體本(草書)인데 이것에서는 筆寫者나 筆寫年代를 밝힐 만한 그 아무것도 發見할 수가 없다. 活字本은 그 原稿의 作成者가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發行年度는 밝히고 있다. 이 活字本은 體裁 分量 登場人物名 年齡 그리고 職責 등이 筆寫本의 그것과 다를 뿐 아니라 底本의 誤讀으로 인하여 전혀 뜻이 通하지 않는 部分이 많다. 이에 筆者는 樂善齋本(韓國精神文化研究院 所藏)과 1920年 9月 30日에 發行된 德興書林本을 比較하여 여기에서 나타나는 몇가지 問題들에 대해 考察해 보려고 한다.

樂善齋本(以下 樂本이라 함)은 별다른 體裁가 없고 그저 “卷之一”로 始作하여 „卷之十”으로 끝나고 있다. 樂本 卷之一 끝을 보면

짐이 만민의 부되 되어 환과고독을 괴롭힘이 게울너 심규⁹너 스스로 종신을 위하여 지어적고 학기의 밋츠니 비록 광망호 죄 이시나 관사하고 경의 벼슬이 오리지 아니 녹경의 종소를 거시니 티우는 랑체니 조금도 혐의치 말고 녹례를 구힘하여 짐심을 쳐바리지 말나 니부상서 현공이 출판하여 말씀울 알외니 츠시 엇지 된고 하회분히하라

로 되어 있고 卷二의 첫머리는

* 人文大 副教授 (國文學專攻)

화설 니부상서 현공이 출판 부복 주왕 폐해 만민을 총찰하사 숙제 통상의 불평하실 적이 만켜놀 이제 조고만 더러운 일로 혼 공식 되게 하든 다 신의 부조의 연피니 불승황공하여 욕스무디로쇼이다.

로 되어 있다. 또 卷二의 끝은

상세 석연 왓 연하다 쇼계 일즉 저 으히 용모 성음이 운행으로 방불하더 세 도지 못하엿더니 형의 말을 드르니 그런듯 시분지라 형은 모로미 슈슈귀 견하여 결말을 아라주미 엿더노 사랑이 허락하고 즉시 도라가니 공이 명하여 부인 협실의 이시라 하고 당시랑의 회보를 기다리더라.

로 되어 있고 卷之三 첫머리는

화설 추밀부스 윤귀화는 위인이 청연결리하고 화평인조하니 부인 두시로 화락하여 삼조 일너놀 두어 너인 지용이 관결하니 부모의 만금교인 비길 더 업더니…….

로 始作하고 있다. 이처럼 樂本은 그 서두를 “화설” “차설” “지설” 등으로 始作하고 있고 끝에 가서는 “하회분희하라” “차하를 분희하라” “차청하회하라” 등으로 그 段落을 짓고 있다.

德興書林本(以下 德本이라 함)은 上下 兩卷으로 되어 있고 上下卷을 다시 各各 十回로 나누어 놓았다. 이것은 樂本에서 볼 수 있는 두드러진 段落을 바탕으로 그 回를 나누고 있지 않고 있다. 樂本에서

능선이 울며 왓 노야의 일월지관이 조림하시니 쇼너 엿지 감히 은익하여 고치 아니리잇가……그티는 비록 용의 평상하나 힘지 현숙하여 죄나 날노 더드러 백년동쥬하리라 하시미 쇼계 명명결개히 거절치 못하여 덤빙일 스이의 노애 참뵈하시니 이 밧고 고홀 말이 업도쇼이다 어시 텡파의 그녀의 말이 과연 니언하니 열호 군조와 명호 장위라도 의심하려든 쥬어스의 경도현량의 빅장 노귀 하 놀곳터여 전두 스페를 도라보지 아니하고 심을 향하여 기리 솟밧흐며 날오더…

로 되어 있어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德本은

능선이 울며 왓 쇼져 앓가 정당에 가시라 이곳을 지나시더니 현상공이 계심을 모로고 드러오시니 상공이 붓들고 왓 주씨 광망하야 군조호귀 아니러니 그

더를 보미 유순훈지라 비년을 히로코즈 향노라 쇼계 정정렬심에 엇지 촛치리이고 로애와 계시니 이 분을 감하 주쇼서 향더라.

에서 第一回의 끝을 내고

츠설 주어시 드르미 스세 그리훈지라 성을 향하야 낮베 춤바타 왈….

을 第二回의 첫머리로 하고 있다.

이번에는 第二回 끝에서 第三回로 넘어가는 곳을 보겠다. 樂本은

삼일 후 녹시를 권귀향여 도라오리 용의 횡시 무일가취로디……쥬시 그 거동을 실노베 민망향여 조용훈 쉰 네로베 개유향디 녹시 고성대언향여 듯지 아니코 한님 귀중향여 향미 비길 디 업서 신혼성정의 브디 쉰 맛초와 만나면 두 눈의 정기를 일코 입의 일쿠르디 기록홍샤 힐육지신이 엇지 저대도록 아롬다이 품슈향였는고 우리 구고는 유복훈지고 향니 좌위 히연실쇼향고 한님이 큰 두통이 되어 갖득훈 시촌 노 우히 녹시 곳 디향면 설풍이 쇼쇼향고….

로 되어 있는데 德本은

삼일 후 목씨를 다러오니 용의 횡시 무일가취로디 주쇼져 민망향야 기유향되 목씨 고성디여향야 듯지 아니코 한림을 귀중향미 비길 디 업서 신혼성정의 목 만나면 두 눈의 정기를 일코 바라보더라.

에서 第二回를 끝맺고

츠설 한림이 큰 두통이 되어 목씨를 디향면 설풍이 쇼쇼향고….

를 第三回의 첫 部分으로 하고 있다.

德本이 왜 章回體를 選擇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樂本에서는 繼續되는 이야기를 德本이 굳이 그것을 兩斷하고 있는 까닭은 每回에 알맞는 分量을 考慮한 데서 이러한 無理가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0卷 10冊으로 된 樂本의 全體의인 分量은 約 240,000字로 이것을 200字 原稿紙에 옮긴다면 約 1,600枚가 된다. 그런데 德本은 上卷이 111面,

下卷이 104面, 都合 215面으로 그 字數는 約 120,000字요 原稿紙로 換算하면 約 800枚에 該當이 된다. 이처럼 樂本의 半밖에 되지 않는 德本은 그만큼 이야기에 飛躍이 甚해 讀者에게 많은 負擔을 주게 되어 있다.

人 物

이 「玄氏兩熊雙麟記」에는 많은 人物들이 登場한다. 樂德兩本은 이 人物 가운데 몇몇 사람의 姓名 年齡 그리고 職任을 다르게 나타내고 있다.

1. 姓이 달라진 경우

가) 후시(樂本) — 호씨(德本)

야심할터 한님이 완완히 니러 옷옷을 벗고 썩로 그룬 후 단의 침전으로 니불 우히 누오되 쇼저를 뉴넬치 아니커놀 부인이 착급하여 실경이나 섰다가 다시 슴쇼리 업스니 후시 너오의 슴쇼리도 업스를 보고 앓기고 어엿블 니기지 못 하여 성을 통한하여 침두로 도라오니 어시 지금 썩었다가 우으며 니르티 녀서의 주머를 언마나 보고 오시노 후시 놀나 왓 엇지 이제까지 취침치 아니하시노 하고 우왓 주미는 무슨 주미 이시리오……어시 티쇼 왓 蓮경문은 일세의 거남 지라 엇지 서역국 무륜훈 중의게 비하리오 그티 만히 실언호도다 후시 변식하고 성의 거동을 일일히 전하니….

(樂卷一)

야심 후 한림이 단의로 칠상의 누오되 쇼저를 도라보지 아니니 부인이 착급 하여 너아의 외로이 안진 거동을 보미 앓기고 통한하여 침소로 도라가니 어시 소왓 녀서의 주머를 언마나 보시노 호씨 왓 이르지 말으쇼서……어시 소왓 蓮경문은 거세 다 날כות는 성현군지니 엇지 서역국 무륜지도의 비기리오 그티 잘못 보앗도다 호씨 변식하고 성의 거동을 말하니…….

(德 上)

미처 산동 고향으로 반장치 못하여 성의 취별산의 복너를 어더 안장홀시 장소를 지내고 반국하여 도라올시 후부인이 춤아 너오의 목जू를 쳐나지 못하여 더욱 슬러하는 고로….

(樂卷四)

익일의 퇴일하여 신산에 안장하고 후부인이 너오의 목जू를 잡아 잡아 춤아

혀나지 못하야 류야로 통곡하며...

(德 上)

여기 指摘된 樂本의 후시는 어사 주명기의 妻요 男主人公 현경문의 아내인 주소저의 母親이다. 때문에 후씨에 대한 言及은 相當히 많다. 그런데도 德本은 한결같이 그녀의 姓을 호씨로 바꾸어 놓고 있다.

나) 철시(樂本)—설씨(德本)

구과 류시의 악질이 쇠피하여시를 넘너하여 철시 녹시로 돌녀가며 구호케 하고 쇼저는 지성각으로 보내니 철소저는 웅대슈웅이 류시의 뒤홀 니오되 녹시는 두툼바리 굵터여 혹 죽그릇도 업치며 불도 조로 켜브리고 혹 데여오나 온넝이 맛긱지 아니니 총지 크게 불열하티...

(樂卷八)

구과 주씨의 악질의 쇠피하얏시물 넘너하야 설씨로 록 구호케 하고 쇼저는 지성각으로 보너니 설씨는 웅대슈웅홀이 주씨에 뒤홀 니오되 록씨는 두툼바리 굵터여 죽음도 업치며 불도 잘 켜지오고 차물 데여오나 온넝을 맛긱지 못하니 총지 심히 불열하티...

(德 下)

초야의 니뷔 지성각의 드러가리 류쇼계 철소저로 더브러 옥성화음이 낭낭하고 지귀 상합하더니 니부롤 보고 양인이 슈식을 췌여 니러 마즈 철시 도라가려 하거늘 니뷔 회연 왓 심이 췌호 식회 아니거늘 경히 엇지 피하야 가려 하노노 열소저 사스 왓 각각 숙쇠 잇는지라 앓가 정당의서 혼정을 파하고 류부인을 의셔 와시나 불셔 도라가려 하던지라 엇지 명공을 피하리잇고.

(樂卷八)

초야에 리부 지성각에 드러가니 류쇼계 설씨로 더브러 말술타더니 리부에 드러오물 보고 량인이 니러 마즈 좌호 후 설씨 도라가려 하거늘 리부 혼연 왓 내가 의인이 아니어든 엇지 회하라 하노고 설소저 스왓 부의 각각 처쇠 잇시니 앓가 혼정을 파호 후 류부인을 의셔 와시나 가라 혼지 오린지라 엇지 피하고 잇시리잇고.

(德 下)

철소저는 현경문의 副室이다. 현경문은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많은 품을 드렸다. 그 說話에 割當된 分量도 相當히 많다. 그런데 德本에서는 철소저와 그녀의 부친 철호빈 등을 모두 설시로 바꾸고 있다.

다) 도길(樂本)→로길(德本)

소신은 과연 현수문의 가하 참군서거로 일즉 민간의 작폐흔 죄로 병부의 팔십장칙을 넘고 그옥이 분을 이기지 못함을 초 계남후 도길(樂本)이 격년의 이서 뜻을 불케의 두고 신을 여츠여츠 가르치오미 신이 과연 일시 죄오물 드리 스죄를 범하였소오니 이제 과연 도길(樂本)이 모역지심을 품어 군귀마필과 리중병감을 장하고 문져 현승상 부조를 죽여 송실 우익을 쓴촌 후 길년의 작변코져 호미니이다.

(樂卷九)

소신은 과연 현수문의 참군서거로 일즉 민간에 작폐흔 죄로 병부의 장칙을 넘고 분을 니기지 못하더니 계람후 로길(德本)이 소신을 여츠여츠 가르치미 일시 여튼 죄로 스죄를 범하였소오니 로길(德本)이 죄하야 모역지심을 품어 7마니 군귀마필을 모도며 거기치중을 저축하야 문져 현승상 부조를 죽여 송실 우익을 쓴은 후 길년에 작변코져 호미로소이다.

(德 下)

도길은 이 作品中에서 크게 問題가 되는 人物은 아니다. 樂本의 “도”가 德本에서 “로”로 바뀐 것은 宮體 草書로 씌어진 것을 읽을 때 흔히 범하기 쉬운 誤讀으로 인한 것이리라 생각된다.

2. 名이 달라진 경우

가) 현후기, 장구(樂本)→현우, 장지(德本)

리부상서 현탁지는 룡두각 태학스 참지정스 녕능후 현후(樂本)가 지라 사름되오미 인후정적하여 일세 귀난지라 부인 장지는 리부상서 장구의 내니...

(樂卷一)

리부상서 현탁은 녕능후 참지정스 룡두각 태학스 현우(德本)의 조오 좌승상 장능후 현경의 손이라 위인이 정적인효하며 단후 장지오 부인 장지는 리부상서 장지의 나라.

(德 上)

이 作品의 男主人公인 현수문과 현경문의 祖父인 현후기(樂本)가 德本에서는 현우로 바뀌었고 外祖父인 장구(樂本)가 장지(德本)로 바뀌었다. (樂本의 현탁지가 德本에서 현탁으로 나타난 것은 “지”가 빠진 것이다)

나) 울니디(樂本)→울지디(德本)

국개 티평하여 스희의 간괘 그쳐시니……파축 서턴 가온더 일개 대적이 니러
느니 설명은 올니덕이라 만부 부당지용이 잇고 지죄 신출귀몰하니 부하의 강병림
장이 무슈훈지라 스스로 서턴 무적대왕이로라 하고….

(樂卷一)

국개 티평하고 스희 무스하더니 서턴 스팀디계의 일리 더적이 니러나니 설명
은 올진더니 만부 부당지용이 잇고 수하 강병림장이 심만에 넘고 조침 무적대
왕이라 하여….

(德 上)

링하여 파축 성도 청성산하의 진세물 일우고 격서물 보내어 올니덕의게 문죄
홀시 이쳐 올니덕의게 웅병림장이 만코 슈하의 모스 신비회란 재 이셔 지죄 신
출귀몰하니….

(樂卷四)

링하여 서축 청성산하의 일으러 진세물 날이고 격서 전하니 올진덕 강병림장
이 심만이오 겸하여 훈 모새 잇시니 설명은 신비회라 지죄 과인하고 슬범이
무쌍하니….

(德 上)

파축 서권의 大賊 올니대가 亂을 일으켰다. 朝廷에서는 현수문과 경
문 兄弟를 出征시켜 討伐케 했다. 이들 兄弟가 賊將의 妖術에 걸려 어
려움에 빠졌을 때 죽은 줄로만 알고 있던 경문의 妻 주소지가 나타났다.
그녀는 일판법사에게서 배운 術法으로 현수문 兄弟의 危機를 克服하고
그 싸움을 勝利로 이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녀는 女化爲男한 正體를
들어내게 되었고 마침내는 효열정숙비에 封해지고 궁중의 여총채가 되기
에 이른다. 이러한 事端의 올니대가 德本에서는 올지대로 바뀌고 있다.

다) 녹의(樂本)—륙완(德本)

주어스의 누이 일린이 이셔 선배 녹의의 체 되었더니 부뷔 구물하고 일너 채
육이 어스귀 의지하여 길니니….

(樂卷一)

주어스의 일리 잇셔 선비 륝완의 체 되었더니 륝성 부뷔 구물하고 일너 채 육
이 어스의게 의지하여 길리이니….

(德 上)

妻家에 온 경문을 보고 그에게 眩惑된 취옥이다. 그녀는 경문이 자는 방에 들어가 그를 誘惑하려다가 發覺이 되자 경문이 자기를 劫奪하려 했다고 하는 한편 皇帝에게 原情을 펴고 賜婚의 教旨를 받아 경문의 副室이 된다. 그러한 취옥의 父親 勸의가 德本에서는 勸완으로 바뀌고 있다.

라) 교염(樂本) — 교영(德本)

귀형의 성녀 산세라 영민쇼통하여 극훈 절식이니 병부는 조듯 우이 너기나 승상 부부는 역시 관육이오 쏘 어의 근본이 바히 상한이 아니라 귀이호를 지극히 하고 하부인은 사랑호를 기출갓치 하여 명을 교염이라 하였더니...

(樂卷八)

귀형의 성에 산세라 영민하고 지극훈 절식이라 병부는 조던 무익히 너기나 승상 부부는 두이호를 지극히 하고 하부인이 사랑호를 기출갓치 부이니 일홈을 교영이라 하였디다.

(德 下)

장시랑 집 乳母에 딸린 혜빙을 본 수문은 乳母를 說得하여 혜빙을 범했다. 그녀가 윤추밀의 딸임을 알게 된 현승상은 그녀를 수문의 副室로 맞게 하였다. 新婚 첫날 윤소저는 그가 술에 大醉한 틈을 타 자기 代身 鬼形女를 新房에 보냈던 것인데 그 鬼形女에게서 딸이 태어났던 것이다. 그 딸을 樂本에서는 교염이라 하였는데 德本에서는 교영이라 하고 있다.

마) 운남국 인명

운남국왕 탈독인 승상 탈탈변과 대장 청목인으로 더브러 군사를 조련하여 병갑을 정제하고 귀병호 인을 의논하더니 초퇴 보왕 대국 편지 황소를 보내어 디경에 이르러는이다.

(樂卷九)

운남국왕 목린 승상 수면과 대장 칠목으로 더브러 군사를 조련하고 병갑을 정제하여 귀병호 인을 의논하더니 초퇴 보왕 송 현지 턴소를 보내어 디경에 이르러는이다.

(德 下)

운남국왕의 소녀 디양공쥬 주식이 단절하고 인시 낭민하더니 이역 오랑끼로 레 의를 비호지 못하였는 고로...

(樂卷九)

초서 윤남왕이 정궁의 일공주를 두어서니 호왈 빅연실이니 슈미호 안외 진깃 경국지시이니 번국에 드문 미시이라.

(德 下)

雲南의 人名은 그곳 國王을 비롯하여 丞相, 大將 그리고 公主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이 모두 樂本과 德本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바) 其 他

아비 능히 조식을 아지 못하느니라 이물 장춧 엇지 처치하리오 춤지정스 하세걸과 슈밀부스 윤귀화와 화주조스 박닝상과 태조소부 유명귀와 호부상서 철호빈 등 일반 도신이 고이호를 주하고...

(樂卷九)

아비 능히 조식을 아지 못하느니라 이물 장춧 엇지 처치하리오 참지정스 하세필과 슈밀부조 윤귀화와 화주조스 박징상과 티조소스 유명귀와 호부상서 설호빈 등 일방 제인이 다 고히호를 주하고...

(德 下)

이적의 영릉부 상낙현 지부 진빅문이 과만이초 금문직스를 하여왔더니 슈쇼저의 전후스를 듯고 크게 칭찬하며...

(樂卷七)

시시에 녕능부 상낙현 지부 창빅운이 라만이초 금직스를 하여왔더니 슈쇼저의 전후지스를 듯고 크게 칭찬하며...

(德 下)

樂本에는 화주자사가 박닝상이고 상낙현 지부가 진빅문으로 되어 있으나 德本에는 박지상, 진빅운으로 나타나고 있다. (樂本の 하세걸이 德本에서 하세필로 된 것은 誤植에서 온 차이이다.)

3. 年齡 및 職位

가) 年齡이 달라진 경우

슬하의 랑조를 두어서니 샤가옥슈오 하가금옥이라 장조 슈문은 구세오 초조 경문은 팔세라.

(樂卷一)

슬하에 랑조를 두었으니 장조 슈문은 구세오 초조 경문은 칠세니...

(德 上)

및 출방하니 장원 현수문의 나히 실일세오 탐화 현경문의 나히 십세라.

(樂卷一)

및 탁방하니 장원은 현수문이니 년이 십삼세오 부는 리부상서 현택지니 산동 인이라 하고 다시 탐화를 탁방하니 현경문이라.

(德 上)

이 作品의 男主人公인 현수문과 경문 兄弟의 年齡을 樂本은 9세와 8세로 하여 一年差를 두고 있는데 德本은 이것을 9세와 7세로 하여 2년의 差를 두고 있다. 또 이들이 科擧에서 壯元和 探花로 選拔이 되었을 때에도 그 年齡을 樂本은 11세와 10세로 하고 있는데 德本은 이것을 14세 12세로 하고 있다.

나) 職 位

즉시 장원 현수문으로 비서각 학사 동궁시독을 하시고 탐화 현경문으로 한림학사 금문직스물 하이시니...

(樂卷一)

상이 특지로 수문을 한림학사 증서스이을 하시고 경문을 정청각 학사 출방한림을 계유하시니...

(德 上)

初位職에 있어서 兩本은 다르다. 樂本은 수문이 비서각 학사 동궁시독이고 경문이 한림학사 금문직사인데 德本은 수문이 한림학사 증서사인이고 경문은 정청각 학사 춘방한림으로 되어 있다.

以上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兩本은 여러 가지 面에서 差異를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이 德本이 底本으로 한 것이 宮體 章書로 筆寫된 것임을 말해 주는 한 端緒가 되기도 하며 또 그러한 宮體本은 傳承過程(筆寫)에서 變質이 되어 몇 가지의 異本을 낳게 된 것까지를 생각해 한다.

省 略(주립)

前記한 바와 이 「玄氏兩熊雙麟記」의 樂善齋本과 德興書林本은 그 分

量에서 많은 差異를 드러내고 있다. 德本은 樂本의 分量의 半밖에 되지 않을 程度이다. 그 一端을 살펴보자.

쇼계 앓가 그런 우뚝이 간 더 업고 슈식을 거두워 옥성이 뿔뿔하여 꺾오더 첩이 비록 미약하나 세상 힘스물 아누니 부즈의 칭언을 감슈치 아니하고 더욱 경천이 너기시물 감슈치 아니하옵누니 군조는 성권을 의오는 당당호 대장부로서 적거 부부 대접하시기를 노에 ㄷ치 하시누노 명일 당당히 구고거 고하고 혼서 문명을 소화하고 첩의 힘스물 징계하러니와 그러치 아닌 건은 비록 부즈의 뇌 호슈똥똥. ㄱ쯔시나 죽을지언정 함복지 아니리니 문회 비록 미약나 피츠 스 문일막이라 엇지 당하의 노에 ㄷ치 면칙을 바드리잇고 연죽 군조의 힘실이 휴손 할가 호노라

옥성이 뿔뿔하여 조금이나 심이세 ㄹ태 이시리오 심이 말을 함복홀지언정 성정이 류다른지라 엇지 감동호 의시 이시리오 넘소 왈 그더의 말이 빛나거니와 현경문은 쇼졸막이라 임의 군지 되지 못하엿거니와 조호 부인 ㄷ튼 숙너는 스승치 아니리니 슈연이나 칠거지악이 업스니 내치며 폐치 못홀지라 전일은 심이 암히하여 부부지함을 써도지 못하엿더니 그더의 말노 조츠 엄명을 맞조와시니 무슨 대시라 요란히 굴니오 조거 충년을 앓기는 쫓과 복의 집심을 허하러 하여는 조의 원을 풀니니 전혀 나의 용렬하미 붓그럽지 아니하라

쇼계 저의 가지록 능멸하물 각골 통한하여 평성 힘을 다하여 구지 밀막으니 심이 실정이 업는지라 스스로 조가의 힘스물 우이 너기고 너모 멸시하미 힘신의 휴손홀지라 비로쇼 물너 정좌하니 쇼계 허튼 의상을 슈념하고 분앙하물 너괴지 못하여 옥면이 찬 지 ㄷ고 향안이 더욱 몹아 정취 조요하니 천태만광이 교슈무 비라성이 그 용식이 괴이하물 모로지 아니하더 조괴지심이나 능히 강잉키 어려운 고로 성되 요란하물 조히 아니너져 쇼저의 처신을 가비야이 알고 부부의 은 밀지스물 창설하물 크게 미안하나 일단 이런지심은 업지 아너 향각 거조를 심 각고 옥면 봉안의 미미호 우음을 먹음어 쇼저를 숙시하니 쥬시 겨유 정신을 명 하여 먼니 좌하엿더니 창외의 시네 고왈 노애 불의에 꼭거 계오샤 쇼저를 브락 시더이다.

(樂卷一)

樂本이 이러한 것에 비해 德本은

쇼계 더로하야 왈 군지 엇지 적거 경실 더점을 이리 비천이 하시누노 첩이 죽을지언정 함복지 아니누이다 창외에 시비 고왈 노애 불의에 병거 제사 쇼저를 명소하심이다

로 간략하게 줄이고 있다. 이것은 비교적 가벼운 경우라 할 수 있겠고

이보다 좀더 甚한 경우도 많다. 樂本이

만일 아귀 얼굴을 슈이 보고져 하거든 회심하여 드리오라 만일 어저러이 문
 밧겨서 석고덕명하는 거죄 이시면 더욱 용납지 아니리라 하니 혹시 나와 야야
 주의를 니르고 불통함을 취하니 심이 처조의 연고로 야야귀 슈칙을 조로 밧줍
 고 뵈경 장척하며 내치는 거조의 밧츠를 실노껴 원한이 슈서귀 도라가고 진경
 은이는 증가지심이나 임의치 못하여 슈일을 쇼세를 폐하고 극서당의 들고 나
 지 아니니 당심 형제 일변 웃고 위로하더라

쇼계 벽도의 말로조츠 심의 죄중의 이시물 듯고 진퇴난난하여 탄왈 내 고이
 혼 병으로 말미아마 쇼년의 신상을 스스로 해호 못하니 혼 몸 슈변도 극난홀지
 라 진퇴유곡이보다 노심쇼스하여 역시 장소를 폐하고 아모리 홀 줄 모른더니
 슈어스의 익화 중하고 쇼저의 일장 심간을 슬을 써다 어식 간신 중의 이서 직
 실이 너모 강직홀 고로 평하여 향니로 내치시니 슈어식 가년이 스모와 인슈를
 비서 쥬문의 설고 표현이 손미를 쉼쳐 권술하여 고향으로 나갈식 다른 권년홀
 거시 업스던 천금 너이 서의혼 가부의 부모를 마자 천년의 원별홀 일을 국꼴년
 석하여 부부 서른 상의하디 현성이 너오 더브리 부비나 실은 남이니 저구괴
 비록 사랑하나 너조의 신세 가부의게 실의혼 후 모습 바라미 이시리오 우리 노
 부체 좌좌 적막하여 향춘 우미를 벗호 분이오 혹 절고우환의 무지홀 시너 등만
 이서는 결단코 보전하기 극난하리니 현상서를 보와 이 쫓을 청하미 엇더하노

어식 소혼 그리이 너져 정히 현부로 나아가려 하디니 현공이 니르러 놀음물
 치워하더니 어식 탄왈 용렬박덕홀 위인이 성충을 과히 넘스와더니 턱의 불히
 슬피샤 더리도 내치시니 쇼매의게 과분홀지라 마어슬 한하리오 다만 간결이 민
 박홀 정위 이시니 브라전디 형은 쇼녀의 불관홀 몸을 여하여 슈삼년을 빌닐진
 디 노부체 아직 서로 의지하고져 능히 대덕을 드리오샤 또더여 지정쇼발로 정
 스를 니르고 구져 청하니 눈물이 거의 쉼리질 도호지라

공이 어스의 저리 굴미 다 오조의 박정하미니 달을 폐히 홀 못치 업고 진실
 노그 정스를 슈연하여 위로왈 형의 심스를 위하여 조부물 다 청하여도 허락하
 염죽 하니 엇지 견집하리오마는 오귀 경오의 조강으로 저의 가식 호번하고 비
 록 용닐하나 식부의 거취는 오지게 이시니 이제 돈오를 보너리니 형이 무려
 보라

어식 청샤 왈 가스는 입장이나 형이 처단홀죽 중여 엇지 하리오 쇼녀는 명낭
 의 브리인 스몸이니 유위 불관홀지라 빌전디 존형은 사물의 궁축홀 형세를 슬
 피라

상세 저의 편협하미 무궁하여 구설이 무익하여 미미히 허락하고 도라와 부인
 을 더하여 츠스를 전하니 부인이 크게 결연하여 밀막고져 하더니 쇼계 부모를

마주 원별을 일을 망극하여 생각하되 날로 팔리아마 현군의 존구 면전의 최척을 주로 밧잡고 죽금 우환 중의 이시니 진퇴유곡의 사세낭난이라 츠시물 당하여 몸을 비러 하느흔 부모의 고적하시물 위로하고 들흔 일신이 난처하물 버서 녹미 구원지계라 하여 정당의 나아가니 상제 이 며느리 사랑하미 친심 으즈의 지는 도호 정이 있느니라 나오라 하여 옥슈를 줌고 운환을 어뜰만져 탄왈 령대인이 이의에 귀항하시니 식부의 심스물 못지 아나 알리도다 연이나 너필중부는 조고로 이시니 유형이 모를 배 아니로되 여츠여츠 하니 현부의 주의는 어디 있느다

쇼계 하색정금 티왈 아히 총년의 술하의 니턱와 빅시 불민하움거늘 구고의 양춘해떡을 넘스와 일신이 안한하니 엇지 존하의 썬나고져 하리있고마는 어버이 미첩 일인을 두어 주이하미 일시 썬나물 어려워 너기올다가 이제 지속업슨 월별을 당하여 반드시 과도히 용너하오미 잇스올지라 부도의 크게 어괴오물 아지 못하리잇가마는 구구호 소경을 이기지 못하여 존건의 고향민가 하음느니 다만 쇼첩의 스슴거체 구고의 처단하실 비니 그옥이 업더여 바랄 비로쇼이다

구고 그 이원호 정스물 년축하여 상제 좌우로 한님을 브르니 츠시 한님이 죽서당의 고요히 드리 스스로 처조 연고로 두문폐출하는 거조를 구연통한하여 울음이 서척으로 쇼일하고 신희모영하는 석의 티양 부모 좌축을 향하여 절하더니 이날 호시 드러와 주어스의 핏적하물 니턱고 츠탄하니 심이 미쇼 알보 파습유의 면결정정하는 제 그 엇던 위인이완되 주어서 저근 물계 짐시름 조튼 쇼임을 당하여거든 엇지 무스하리오

호시 쇼왈 류공이 비록 혼일거세하는 지죄 업스나 간방정적호 재니 너는 엇지 티양 장자를 공경치 아니하느뇨 심이 웃더니 부명이 있느니라 한님이 년망이 의관을 슈림하고 형제 호가지로 너당의 드러가 심이 계하의셔 칭죄하니 상제 오락기를 명하고 널오더 너의 불통피벽호 거동을 아니보라 하엿더니 유형이 의외에 고향으로 도라가니 용서 스이 아니가보져 못홀지라 비로쇼 사하느니 네 더욱 방조하리로다

한님이 고두하여 성됨을 사려하고 시과하니 호시 주시물 향하여 어스의 원힘을 치위하니 쇼계 녹죽이 불림하물 더하더라 공이 이의 주어스의 쇼원을 설파하고 짐조 널오더 유형 부녀의 정시 유연호지라 내 허하여시니 네 엇지코져 하느다 심이 심하의 놀느나 조호 과도히 결연호 뜻은 객은지라 공슈 티왈 주어서 너즈의 삼종을 막고 스스로 소정만 견주하니 대인이 이의 허락하여 겨신지라 히오는 다만 존명대로 홀 분이로쇼이다

상제 도심경 안팎이 으즈의 뜻을 슯치고 식부물 크게 잔임히 너게 그 덕음이나 아직 편과져 하여 쇼저를 향하여 널오더 으부는 니친홀가 슬허말고 힘니

를 다스려 명준의 발흥하시니 날 노아가라 쇼계 만흥하여 덕됨을 속사하고 퇴하니 공이 탄왈 경문이 었지 저런 현처물 능히 진압하시오 유형이 식안이 업서 숙녀의 평성을 어저러이노도다 부인이 기리 탄식하더라

쇼계 부모기 구고의 허락하시물 기별하고 발흥하실 날을 무릿는지라 어스 부워 크게 갖거 다시 거리셀 거시 업는 고로 우명일 니발하를 전하니 구과 슈이 쉼나를 결연하여 부인이 술하의 두고 무이하더니 상제 으드려 식부의 침쇼 좃기물 알은 체 아니하더니 심이 비록 중정이 격으나 불의의 원별을 결연하며 초야의 지성각의 드리가니 쇼계 업는지라 시너로써 청혼티 회보 완 부인이 칭하시티 내 식부로 더브리 니정이 의의하여 출가지로 자려 하느니 너는 불근인 정혼 재라 었지 밋기서 조지 아니코 드리왔노노 하시티이다 심이 모친 친인을 듯고 그옥이 우으며 홀노 서안을 디하여 당시를 음영하니 옥성이 용건 청티하여 구련의 학녀성 갖튼니 밤 소리 먼니 가는지라 공이 호스로 더브리 월하의 산보하더니 글소리를 듯고 으즈를 도라보와 완 경이 품슈하미 바히 용널치 아니하티 현처물 아지 못하여 박티하미 지어 삼중을 킷치 아니티 그 가치 아니물 모르고 쉼을 갖거하는 괴식이 이시니 진실노 경오를 위하여 격앙을 두리노라

혹시 공슈 디왈 아이 조쇼로 총명 효순하니 었지 무고히 으기 락함을 감심하리잇고 저허 낭식이 태심하미니 야야는 성녀를 과도히 마르소서 슈슈 조형은 인조효심의 비로스미니 너조 유희은 원부모형제로티 슈어스와 슈시 이물 쉼도 지 못하미 아니로티 소경이 간절하오미니 기정이 처의로쇼이다 공이 저두 초탄하고 호소를 명하여 서당의 가 조라 하고 너루의 드리가니 부인이 낭부로 더브리 말습하다가 니러 밋고 이쇼계 하척영지하니 상제 평신하를 니터며 웃고 완 부인이 머너리를 너모 사랑하시노도다 각각 제 침쇼의 보너여 편히 자게 하리니 었지 알피 두어 불평케 하시노노 부인이 빈미 디왈 우명일은 주현부의 원별을 당홀지라 이 도시 경오의 연피니 었지 통한치 아니리잇고.

(樂卷一)

로 되어 있는 部分이 德本에서는

만닐 아비 얼굴을 슈히 보고조 향거든 회심하야 드러오게 하라 학시 나와 야의 말습을 전하고 불통하를 취하니 심이 이후로 독서당에 들고 나지 아니니 장성 명제 일번 웃고 위로하더라 공이 학소를 명하야 서당에 가 조라 하고 너당에 드리가니 부인이 랑부로 더브리 말습하다가 니러 밋고 랑쇼계 하척영지하니 공이 웃고 완 밤이 입의 김헛거늘 조부들을 노하 편히 조계 아니시고 여러 머너리의 지미를 취하야 이티도록 사랑하시노노 각각 제 침쇼로 보너여 편히

스게 ㅎ쇼셔 인ㅎ야 쥬쇼져를 어로만져 스랑 무궁ㅎ야 오러 모도이지 못ㅎ을 한ㅎ야 광미에 수운이 어터이니 부인이 빈미 완 우명일을 쥬쇼져를 니별홀지라이 도시 경아의 연괴니 엇지 통한치 아니리잇고.

로 줄었다. 相當한 部分이 줄고 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甚한 例도 몇 군데 發見이 된다. 그러나 全體的인 큰 줄거리 그 自體에는 별 다른 변화는 없다.

誤 讀

樂本과 德本の 두 가지를 두고 볼 때 이 두 책은 事實上 똑같은 單語를 서로 다르게 나타내고 있다. 이런 경우 우리는 德本이 底本으로 採擇한 책이 宮體 草書로 쓰여진 것이며 그것을 잘 못 읽은 結果임을 쉽사리 깨닫게 한다. 다음에 몇 가지 例를 들어본다.

1. 거좌—거되

심이 정식 왕 금일의 비록 일언을 ㅎ여시나 너지 문득 온순훈 덕을 일혀 거좌
히언ㅎ기의 니르니... (樂卷一)

심이 정식 왕 내 비록 거일에 일시 실언ㅎ미 잇스나 너지 온순훈 덕을 닐혀
거되 ㅎ기에 멧츠니... (德 上)

2. 격거—격귀

군주는 성권을 위오는 당당훈 대장부로서 격거부부 대접ㅎ시기틀 노예 ㄹ치
ㅎ시느노. (樂卷一)

쇼배 더로ㅎ여 왕 군지 엇지 격귀정실 디점을 이리 비천이 ㅎ시느노.
(德 上)

3. 거좌—귀리

나의 넘너를 쓴호라 만일 지지ㅎ미 이실진터 별단 거좌 이시리니 힘혀 광망
ㅎ물 고이히 너기지 말고... (樂卷七)

나도 넘너를 쓴호리니 만닐 지지훈 즉 별단 귀리 잇시리니 나의 다적ㅎ물 윈
치 말고... (德 下)

4. 례귀—례거

학시 최성각의 드러가니 쇼제 서안을 더ㅎ여 례귀를 넓다가 성을 보고 슈식

을 쇠워 니러 마즈니… (樂卷一)
 학시 취성각에 드러가리 쇼계 서안을 텃하야 령겨를 슈식을 쇠여 니러 마즈
 니… (德 上)

5. 기출—지출

승상 부부는 역시 골육이요 쓰 어의 근본이 바히 상한이 아니라 무인호물 지
 극히 호고 하부인은 사랑호물 기출호치 호여… (樂卷八)
 승상 부부는 무인호물 지극히 호고 하부인이 사랑호물 지출호치 부이니 일흠
 을 교영이라 호았더라. (德 下)

6. 도복—로복

이리구러 일망이 지나리 총지 기뻐 총실호고 신질이 쾌쇼호니 이의 도복을
 호초고 권하의 인더호시… (樂卷八)
 일망이 지나리 총지 기뻐 총실호고 식음이 여상호지라 이에 로복을 호초야
 칠하의 슈스호시… (德 下)

7. 도길—로길

국척 제남후 도길은 흥협간스훈 명신이라. (樂卷九)
 국척 제남후 로길은 흥협간스훈 지라. (德 下)

8. 도희—로희

상이 좌우 제사드려 무리 왈 현상부와 슈문이 도희의 드리호지 아니호노노.
 (樂卷九)
 상이 좌우 제신드려 무리 곱오더 현상부와 슈문이 엇지 로희에 불참호앗노노.
 (德 下)

9. 위려—위혀

어시 망터 부부의 일점혈육이라 호여 무홀호물 너의 감치 아니터니 그 위
 인이 경천 위려호여… (樂卷一)
 룽성 부부 구물호고 일너 취육이 어스에게 의지호야 길러이니 그 위인이 경
 천 위혀호야… (德 上)

10. 례의—혜의

삼강이 두렷호고 오륜이 명명호여 스람이 금슈와 다름 례의 넘치물 의장호
 미어놀 이제 녁즈당은 출언이 인륜호시고… (樂卷七)
 삼강이 두렷호고 오상이 명명호야 스람이 금슈와 다름은 혜의 넘치 잇시미어
 놀 이제 녁즈당은 출어인유호시고… (德 下)

11. 하석—하적

부인이 낭부로 더브러 말슴하다가 니러 맛고 이소계 하석 영지하니 상세 평
신하물 니르며 웃고 왈… (樂卷二)

부인이 랑부로 더브러 말슴하다가 니러 맛고 랑소계 하적 넘지하니 공이 웃
고 왈… (德 上)

12. 실성—실경

문득 옥녀 방방하물 바야흐로 서도지 못하고 이뵈고 슈리하미 병출하여 실성
테읍하니… (樂卷一)

소계 대경히이 하야 이달오미 스들하야 옥녀 방방하야 실경체읍하물 면치 못
하니… (德 上)

13. 삼일유가—삼일옥과

부종의 도라오리 만도거경이 운집 성렬하여 영화톨 하레하고 하참정 주어스
등의 것브른 지기중이러라 삼일유가를 맛츠미… (樂卷一)

집에 도라오리 장부인의 두긋기물 니르도 말고 하 주 랑신부의 부영쳐귀훈
영해 더욱 찬난하더라 랑인이 옥과를 맛고… (德 上)

14. 유식—옥식

쇼계 노루 힘하여 주지승 안진법스 즈못 유식 소리훈 고로 이의 머므나 용되
딛결흔지라. (樂卷五)

촌촌이 힘하야 연형부 명은스에 나아가 머물새 주지승 안법새 즈못 옥식하나
용되 딛결흔지라. (德 上)

15. 근본—조본

비록 가귀 무례방탕하여 몸이 농담호구의 썩러져다가 다시 복합하며 그러듯
무례치 못할 거시어늘 하물며 슈문이 저일 나히 점고 일시 호신으로 너의 근본
을 아지 못하고 멀더하미 이시더… (樂卷十)

너저는 복어인이니 가귀 비록 무례방탕하야 몸이 농담호구이 썩러졌다가 다
시 복합하야는 그러듯 무례치 못할 거시어늘 하물며 견닐 소문이 년소호신으로
그더의 조본을 아지 못하고 멀더함이 잇서시나… (德 下)

16. 전하여—권하여

운시 흐롤 반겨 서로 문답하더니 문득 시네 계후의 명을 전하여 곱오던 윤회는
썰니 금침을 가지고 외당 죽서당으로 나와 유군을 뵈시라 하시더이다.

(樂卷十)

운쇼계 쓰흔 반겨 서로 문답하더니 문득 시네 메후에 명을 권하되 윤회는 팔
니 금침을 가지고 외당 주서현에 나와 주공을 뵈시라 하시더이다. (德 下)

17. 불개—불제

국척 계남후 도길은 흥현간스흔 영신이라 그옥이 불개의 뜻이 있더니 형이
인연하여 계남후의 시첩이 되니.... (樂卷九)

국척 계남후 로길은 흥현간스흔 지라 그옥이 불제흔 뜻이 있더니 그 교언녕
식에 후하야.... (德 下)

18. 그죄—기리

웅세 맛빠호는 버락슬 어내가 빙향전디 유의유관흔 스패 기어 광언망설을 나
는터로 하니 그죄 불용래라 가히 용털하나 아비 이시물 알고 따조보라....

(樂卷一)

웅세 서로 쓰호는 띠를 어더가 빙향관디 스패의 관을 쓰고 광언망설을 나오
는터로 하니 기리 중흐지라 용렬춤 아비 잇는 줄 알고 마저라. (德 上)

19. 평부—령부

성이 본부의 도라가니 아춤 문안을 아직 파치 아니 하엿겨늘 나아가 시좌하니
부인이 신부의 평부물 곳고.... (樂卷一)

성이 도라오니 부인이 쇼저의 령부를 듯고.... (德 上)

20. 평상—령상

그 위인이 경천뢰리하야 너형이 바히 업고 겸하야 용되 평상하미 무일가래라
(樂卷一)

그 위인이 경천뢰리하야 너형이 바히 업고 겸하야 용되 령상하야 무일가래라.
(德 上)

21. 화평—화령

우설을 무릅써 일야를 지너게 하니 군즈의 인덕이 아니오 쓰흔 슈삼치 날노
디브러 부부지낙을 니르지 말고 호로도 일방중의 화평히 너하야 본 적이 업스
니.... (樂卷一)

우설을 무릅쓰고 일야를 신고케 하니 비록 마음에는 쾌하나 군즈의 인덕이 아
니오 정흔 삼리의 호로도 혼 방에서 화령이 더홀 적이 업스니.... (德 上)

22. 폐하다—레하다

주서 전일 쇼강이 정뎡하다가 이제 상봉하미 깃브다도 하러니와 계 부도물

페훙죽 나도 레로 더럽지 아닐지라... (樂卷六)
 주씨를 상봉하미 깃브다 하려니와 제 만일 부도를 레훙진던 나도 레더치 아
 닐지라... (德 下)

23. 페륜—해륜

상이 종불운하시고 주소스를 인견하사 곱으사더 경례 호티호 공덕이 가국의
 지중하거늘 잊지 페륜홀 뜻을 두리오. (樂卷九)
 상이 종불운하시고 주소스를 인견하사 기너 두물 포장하시고 곱으사더 경너
 에 호티호 공덕이 국가 진동하거늘 잊지 해륜홀 뜻을 두리오. (德 下)

24. 턴즈—현즈

드덕여 지축하여 가는지라 송신이 출마 대호 왕 장군의 령을 알고 턴즈의 뜻
 을 아지 못하느니... (樂卷三)
 드덕여 지축하여 모라가는지라 송진이 출마 덕호 왕 너 장군의 명을 알고
 현즈의 뜻을 아지 못하노라. (德 上)

25. 턴궁—현궁

용광이 좌중홍옥 초춘을 웃거늘 하 주 낭소저의 빅만염티 턴궁의 두넛 명월
 이 일시의 북아시며... (樂卷十)
 용광이 슈출쇄락하앗시미 홍옥 초춘을 웃거늘 하 주 윤 설 스인이 빅만염티
 현궁에 네넛 명월이 널시에 밝앗시니... (德 下)

結

1. 「玄氏兩熊雙麟記」는 朝鮮朝 後期에 創作되었으리라 推測되나 作者와 創作年代를 아울러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現傳하는 作品의 筆寫年代 조차 考究할 길이 없어 哀惜하다. 그러나 筆者는 이 作品이 다른 樂善齋本小說과 거의 때를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1920年 德興書林에서 出刊한 活字本보다는 100餘年 앞설 것으로 생각한다. 때문에 이 筆寫本은 德本の 底本이 된 것과 딱 가까우리라 생각한다.

2. 樂善齋本은 10권 10책으로 되어 있으며 各卷의 서두는 대체로 화설 차설 지설 등으로 始作하고 卷末에 가서는 하회를 분히하라 하회

분히하랴 차칭하회하랴 등으로 맺고 있으며 그때마다 事件 줄거리에 한 段落을 짓고 있다. 그런데 德興書林本은 上下 兩卷으로 나뉘었고 各卷은 또 各各 10回의 章回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이 책은 樂本에서와 같이 事件의 段落을 基準으로 章回를 나누지 않고 있어 꼭 거북스러운 面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編輯者가 事件中心으로 章回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每回에 알맞는 分量을 考慮한데서 이러한 無理가 생긴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3. 德興書林本은 그 分量에 있어서 樂善齋本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이것은 六錢小說의 編輯者가 任意로 그 分量을 줄인 것으로 생각되나 왜 그렇게 줄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確實치 않다. 이처럼 德本은 많은 分量을 줄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이 책은 內容上에 많은 飛躍이 있게 되었고 그만큼 原本과의 差異도 많다.

4. 德興書林本은 登場人物의 姓名 年齡 그리고 職責 등에서 樂善齋本의 그것과 많은 差異를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作品「玄氏兩熊雙麟記」自體의 傳承過程에서의 變質과 德興書林本 編輯者의 宮體本 誤讀에 基因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5. 樂善齋本과 德興書林本은 똑같은 部分과 서로 비슷한 部分이 있기도 하지만, 많은 部分이 아주 다르다. 이러한 事實로 우리는 作品「玄氏兩熊雙麟記」에 異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 樂善齋本이나 德興書林本은 똑같이 誤字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樂本의 경우는 그것이 꼭 드물게 나타나지 않는 德本의 경우는 매우 甚하여 읽기에도 거북할 程度라 할 수 있다. 이것은 德本이 印刷術이 좋지 못하던 때에 出版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그 編輯者의 能力에도 問題가 있었던 때문이기도 하겠다.

7. 以上の 몇 가지 理由로 인하여 우리는 1900年代에 들어와서 出版된 古典小說 作品에 대해서는 相當한 注意를 하지 않고서는 큰 失手를 범할 素地마저 있음을 알게 되었다.